

 해양수산부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21. 12. 15.(수) 총 13매(본문 4, 참고 9)	
담당 부서	해양레저관광과	담당 자	• 과장 전준철, 서기관 최영인, 주무관 이진범 • ☎ (044)200-5250, 5251, 5252	
보 도 일 시		12월 16일(목) 14시 이후 보도 가능		

코로나19로 지친 일상, 치유와 휴양의 바다로

- 해양수산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발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2월 16일(목)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정계획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보고하였다.

‘해양치유’는 바닷바람, 파도소리, 바닷물, 갯벌, 백사장, 해양생물 등 바다 자원을 활용하여 체질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독일, 프랑스 등 서구권에서는 삶의 질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일찍부터 해양치유산업이 활성화 되어 왔으며, 코로나 이후 국민들의 건강한 삶과 연안지역의 성장 동력을 이끌 신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9년부터 완도, 태안, 울진, 경남 고성에 권역별 해양치유시범센터를 건립하고 있고, 2020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법·제도적인 기반도 마련하였다.

이번 계획은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형 해양치유 모델(K-Marine Healing) 창출’이라는 비전 아래 2026년까지 ▲해양치유자원 검증을 통한 신뢰도 확보 ▲산업기반 구축을 통한 연안지역 성장 ▲해양치유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추진전략, 10개 세부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전략 ①] 사계절 해양치유 콘텐츠 발굴

◆ 해양치유산업의 핵심소재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각 **지역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해양치유 서비스를 다변화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우선, 해양치유자원의 발굴부터 효능검증, 활용 및 사후처리까지 해양치유자원에 대한 전주기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문헌 및 현지조사와 기존 해양자원 플랫폼*을 활용해 해양치유 효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새로운 해양치유자원을 추가로 발굴하고, 해역별 분포 현황, 자원량 등을 조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또한, 발굴된 해양치유자원의 효능과 효능발휘 기작(메커니즘)을 의과학적으로 확인하는 동시에 복합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중금속, 미생물, 방사선 등 치유자원이 보유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성을 제거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기준과 관리지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관리 매뉴얼도 도입할 계획이다.

* 해양바이오뱅크(유용한 해양생물 소재를 발굴하여 기업 등에 제공하는 소재은행) 등

이와 더불어, 지역별 치유자원의 특성과 주요 치유 대상별 수요를 고려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수욕장이나 리조트, 해양레저관광거점 등 지역 관광 인프라와 연계한 해양치유서비스를 발굴한다.

아울러, 해양치유서비스를 다변화 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치유장비와 기기를 개발하고, 현재 4개 지역에 건립 중인 해양치유 시범센터를 산·학·연 협력거점으로 육성하여 실증연구를 지원한다. 또한, 민간 주도의 해양치유자원 및 관광상품 개발 지원을 위해 지역별 창업·투자 지원센터도 활용할 계획이다.

[전략 ②] 해양치유서비스 인프라 조성

- ◆ 해양치유서비스 제공 거점인 **해양치유센터**와 **해양치유지구**를 조성하고, 해양치유 프로그램과 서비스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해양치유 시범센터를 치유 프로그램 운영과 자원관리 기능을 포함한 복합 공간으로 조성함과 동시에, 각 지자체와 협력해 각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센터 운영방안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완도군 해양치유센터	태안군 해양치유센터	울진군 해양치유센터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 대표 치유자원 : 전복, 해조류, 비디모래 ▪ 주요 치유 프로그램 : 스포츠 재활형 ▪ 주요 도입시설 : 해수풀, 해양치유테라피시설	▪ 대표 치유자원 : 머드, 소금, 토탄 ▪ 주요 치유 프로그램 : 레저복합 ▪ 주요 도입시설 : 해양치유시설, 재활센터	▪ 대표 치유자원 : 열지하수, 해송 ▪ 주요 치유 프로그램 : 중장기 체류형 ▪ 주요 도입시설 : 해양치유시설, 장기치유시설	▪ 대표 치유자원 : 어패류, 해양경관, 기후 ▪ 주요 치유 프로그램 : 기업 연계형 ▪ 주요 도입시설 : 해양치유센터/교육센터, 해수풀

또한, 해양치유 시범센터를 중심으로 해양치유시설을 설치하고, 해양치유지구를 지정하여 산업 거점으로 활용하고, 연안에 위치한 인근 지자체 등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수한 치유 자원과 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어촌마을을 해양치유 체험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어촌관광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삼는다.

아울러, 해양치유자원과 해양치유센터 및 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전문인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해양치유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 연구기관 등의 활용을 지원하고 이용객의 해양치유서비스 접근성, 이용 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다.

[전략 ③] 해양치유산업 생태계 구축

◆ 태동기에 있는 해양치유산업을 유망산업으로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 서비스 인증제도 마련** 및 관계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한다.

우선, 대학, 지역 교육기관 등을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전문자격 이수 과정을 설계함으로써 산업 현장에 적합한 인재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발전시켜 향후 “(가칭)해양치유사” 국가전문자격제도의 신설도 추진한다.

또한, 해양치유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해양치유 시설과 장비에 대한 인증체계를 구축하여 해양치유의 효과와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검증·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등 해양치유산업과 관련된 부처, 지역별 해양치유센터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독일 휴양치유협회, 프랑스 로스코프 해양치유센터 등 해외 선도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전문인력 연수 프로그램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철조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해양치유산업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최근 트렌드에 부합하는 신산업으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연안·어촌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해양치유를 통해 달랠 수 있도록 이번 계획 수립을 발판으로 해양치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얕은 바다 걷기



해변 노르딕 워킹



바다 명상



단체 사진



해변 체조



독살체험



바다체조



조개잡기 체험

1 추진 배경

□ 계획의 개요

- **(치유산업)** 기대·평균수명 증가,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웰니스 관광과 같은 건강 관련 산업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치유·휴양문화 성장
- **(해양치유)** 해양기후·경관·생물, 해수 등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 치유가 유망 신산업으로 주목, 유럽은 해양치유 산업화·대중화 지원
- **(계획의 의의)**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법률* 시행에 따른 법정 기본계획으로, 향후 5년간의 중장기 비전 및 목표 제시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20.2 제정, '21.2 시행)

➡ 新관광트렌드, 사회적 수요에 따라 **해양치유자원 활용·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을 통한 **해양치유산업 육성** 및 **해양치유문화 확산** 필요

□ 국내외 현황 및 여건

- **(국제동향)** 웰니스 시장의 경제적 가치는 4.5조 달러로, 연평균 6.6%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주도권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도 심화
 - 치유산업 선도국은 해양치유서비스를 치료, 건강·복지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 사회문화적 여건에 따라 특화하여 산업화



(독일)

의료인이 상주하는 **치유 휴양지(Kurort)**를 통해 재활치료, 질병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형** 해양치유서비스 제공

* 연방법에서 인증한 35개 해양치유 휴양지 방문객 연 1,100만명(10년간 평균 5.3%↑), 이용자 중 보험 수혜자 비중 약 40%('19, 독일휴양치유협의회)



(프랑스)

남서부 연안 **리조트** 및 **관광단지**를 중심으로 **휴양·관광형** 해양치유서비스 제공, 의사처방을 통한 서비스 이용 시 사회보장보험 지원

* 인증기관(35개소), 요법시설(83개소)을 통해 연간 90만명 서비스 이용



(일본)

지역관광 활성화 및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해양치유시설 26여 개소 조성·운영

- **(국내정책동향)** 산림, 농업과 같은 자연자원을 활용한 치유산업 육성을 위해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인프라 조성중
 - * (산림청) 2000년대부터 산림치유 활성화 정책을 추진, 151만명 대상 치유서비스 제공('20)
 - (농진청) 치유농업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20), 치유농업사 양성 등 추진
- 해수부에서는 해양치유관리단을 지정('21.7)하여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협력 지자체를 선정하여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 추진
- **(여건 및 전망)** 고령화, 만성질환자 증가 등으로 예방적 건강관리 수요 및 관련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웰니스·휴식·치유로 관광 트렌드 변화
 - 휴식·휴양을 목적으로 한 바다 방문객 수와 이를 기반으로 한 해양치유·복지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바닷가 방문 목적이 "심신안정 및 휴식"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해양관광정책 방향으로 '휴양공간 조성' 강조

2

추진 전략

비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형 해양치유 모델(K-Marine Healing) 창출

목표

- 해양치유자원 검증을 통한 신뢰도 확보
- 산업기반 구축을 통한 연안지역 성장
- 해양치유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3대 추진 전략

① 사계절 해양치유 콘텐츠 발굴

② 해양치유서비스 인프라 조성

③ 해양치유산업 생태계 구축

세부 추진 과제

- ① 해양치유자원 이용·관리체계 마련
- ② 지역 특성화 및 융합 프로그램 발굴
- ③ 해양치유 다변화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

- ① 해양치유 시범 거점 조성 추진
- ② 서비스 제공 공간 조성·확대 추진
- ③ 해양치유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 ① 전문인력 양성 추진
- ② 서비스 표준화
- ③ 협력 네트워크 구축
- ④ 대국민 인식증진 및 홍보

1 사계절 해양치유 콘텐츠 발굴

- ◆ 해양치유자원의 “발굴-검증-활용-사후처리”의 전주기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관광자원과의 연계, 상용화 연구 등을 통한 콘텐츠 다양화

< 해양치유자원 이용·관리체계 마련 >

- (자원조사) 문헌·현지조사, 유용 해양생물 소재의 활용가능성 조사·분석 등을 통해 新치유자원을 추가 발굴하고, 해역별 분포현황 조사
 - * 남해 서부 → 서해 → 남해동부 → 동해 → 제주
- (효능검증) 해양치유자원의 효능발현 메커니즘 규명*을 통해 치유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고(~25), 이를 기반으로 표준 활용기술 개발(~26)
 - * 특정 자원의 특정 증상에 대한 임상적 효과 검증에 그치지 않고, 의과학적 효능 발휘 기작에 대한 객관적 규명 추진 및 복합적 활용방안 제시 / 16개(기존8+신규8) 자원대상 조사 추진
- (안전관리) 해양치유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전을 위해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 및 표준화된 관리 프로세스 도입
 - * 치유자원의 중금속, 미생물, 방사선, 기타화합물 대상 안전기준 및 관리지침 제시

< 지역 특성화 및 융합 프로그램 발굴 >

- (지역 특성화) 지역별 환경여건, 주요 치유대상을 고려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관광 인프라와 연계한 해양치유서비스 발굴
 - * 해수욕장 내 해양치유 체험구역(노르딕 워킹존, 비치박스 등) 조성, 해안경관 감상(해변, 해상, 해중)과 연계한 치유 프로그램 구성 등
- (융합 프로그램) 치유의 숲, 치유농장 등 산림·농촌의 치유시설 또는 미술, 음악, 심리치료 등 타 분야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 * 예시 : (해양+산림) 완도의 산림해양치유길, (치유+미술·심리치료) 해변에서 미술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해소하는 ‘마린아트테라피’

< 해양치유 다변화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 >

- **(기술개발)** 첨단 기술을 적용한 해양치유제품 개발, 관련 장비·기기 개발 및 시설 설계, 실감형 콘텐츠 개발로 해양치유서비스 다변화
- **(테스트베드)** 4개 시범 해양치유센터를 기술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및 관련 산·학·연 협력거점으로 육성하여 해양치유 기술개발 활성화

2 해양치유서비스 인프라 조성

- ◆ 해양치유센터, 해양치유지구를 중심으로 대국민 해양치유서비스 제공 거점을 조성하고, 해양치유정보 활용도 제고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추진

< 해양치유 시범거점 조성 추진 >

- **(해양치유센터)** 4개 해양치유센터*의 적기 완공을 통해 서비스 제공 거점을 조성하고, 장기적인 센터 운영방안 마련 추진

* 전라남도 완도군, 충청남도 태안군, 경상북도 울진군, 경상남도 고성군

완도군 해양치유센터	태안군 해양치유센터	울진군 해양치유센터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 대표 치유자원 : 전복, 해조류, 바다모래 ▪ 주요 치유 프로그램 : 스포츠 재활형 ▪ 주요 도입시설 : 해수풀, 해양치유테라피시설	▪ 대표 치유자원 : 머드, 소금, 토탄 ▪ 주요 치유 프로그램 : 레저복합 ▪ 주요 도입시설 : 해양치유시설, 재활센터	▪ 대표 치유자원 : 염지하수, 해송 ▪ 주요 치유 프로그램 : 증장기 체류형 ▪ 주요 도입시설 : 해양치유시설, 장기치유시설	▪ 대표 치유자원 : 어패류, 해양경관, 기후 ▪ 주요 치유 프로그램 : 기업 연계형 ▪ 주요 도입시설 : 해양치유센터/교육센터, 해수풀

< 서비스 제공 공간 조성·확대 추진 >

- **(해양치유지구)** 해양치유자원 관리·활용, 치유시설 설치 및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해양치유지구”를 연안지자체 중심으로 지정
 - * 연안지역 해양치유자원 활용 시설형, 연구·상업시설 등과 연계된 단지형 등 유형별 조성
- **(해양치유마을)** 우수한 해양치유자원을 보유한 어촌마을을 해양치유마을로 시범 지정하여 **어촌지역 특화 해양치유모델** 개발 추진
 - * 어촌체험휴양마을, 어촌뉴딜 사업지의 기반시설이나 유휴공간을 해양치유 체험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어촌관광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해양치유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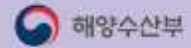
- **(DB 구축)** 치유자원의 관리·활용을 위한 효능·분포도 등 자원정보와 센터 운영현황, 인증 프로그램, 연구개발 성과 등 서비스 정보 수집
 - * 자원정보 현장조사·수집 → 연계 건강·질환 정보 수집 → 해양치유센터 운영정보 수집 →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 추진
- **(시스템 구축)**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자원의 상업적 활용 및 상용화 연구를 지원하고, 해양치유서비스 이용자 편의 제고

3 해양치유산업 생태계 구축

◆ 태동기에 있는 해양치유 산업화 체제를 정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력양성·인증체계 마련, 거버넌스 구축** 등 추진

- **(인력양성)**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일정 기준을 갖추고 치유활동을 지원하는 “해양치유사” 국가전문자격제도 신설 검토
 - *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22.上)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해양치유 전문 자격 이수 과정 커리큘럼을 설계하여, 산업 현장에 적합한 인재양성 지원 검토
 - *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가 표준화한 것
- **(서비스표준화)** 해양치유서비스의 품질관리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시설·장비 인증체계 구축
 - * 시설·장비 구성범위 검토, 용도분류('22) → 물리적 환경조사('23) → 인체안전성/활용성 평가기준 마련('24) → 인증기준 재평가 및 항목별 인증절차 마련('25)
- **(협력 네트워크)** 산림·농진청 등 관계기관 간, 지역별 해양치유센터 간 협의체를 통해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선도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 * 독일휴양치유협의회(DHV, 1892~), 프랑스 로스코프 해양치유센터(1899~)
- **(홍보)** 지역 특성화 자원과 관광 자원을 연계한 해양치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향후 바우처 도입 등으로 복지서비스 제공 검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22~'26)



비전 및 목표

비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형 해양치유
모델 창출(K-marine Healing)



목표



치유자원 신뢰도 확보



국민건강증진

연안지역 성장

추진전략



01

사계절 해양치유
콘텐츠 발굴

- ① 해양치유자원 이용·관리체계 마련
- ② 지역 특성화 및 융합 프로그램 발굴
- ③ 해양치유 다변화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



- ① 해양치유 시설 거점 조성
- ② 서비스 제공 공간 조성·확대
- ③ 해양치유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02

해양치유서비스
인프라 조성

해양치유산업
생태계 구축

03

- ① 전문인력 양성
- ② 서비스 표준화
- ③ 협력 네트워크 구축
- ④ 대국민 인식증진 및 홍보

추진과제



콘텐츠 발굴



해양치유자원의 '발굴-검증-활용-사후처리'의 전주기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관광자원과의 연계, 상용화 연구 등을 통한 콘텐츠 다양화

자원 이용
관리체계 마련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발굴



다변화
기술개발



인프라 조성



해양치유지구, 해양치유센터를 중심으로 대국민 해양치유서비스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해양치유정보 활용도 제고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시험거점
조성



서비스 제공공간
조성 확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산업 생태계 구축



태동기에 있는 해양치유 산업화 체계를 정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력양성·인증체계 마련, 가버넌스 구축 등 추진

전문인력
양성



서비스
표준화



네트워크
구축



홍보



해양 치유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즐기는

